

월간
殉國

순국

2024
6

통권 제401호 www.soongook.org



광복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SPECIAL THEME

제14회 '의병의 날' 기념특집

'대한제국기 후기 의병의 봉기와 일제의 의병 탄압'

순국 특별 초대석

강진갑 무명의병포럼 대표·역사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아름다운 사람들

이달의 순국선열 | 김원국·김원범 의병장·김경천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 | 프레데릭 맥켄지, 플로이드 톰킨스,
루이 마랭 선생

역사의 시선으로 구국 의병항쟁 열전⑥ - 심남일 의병장

길 따라 열 따라 서울, 독립운동과 역사의 현장을 가다⑩



우수콘텐츠집지
2024



순국선열 Photo News

대한민국의 열, 독립정신

광복의 빛을 되찾게 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개인의 안위와 행복보다 소중하게 여긴 선각자들. 어두운 현실에 희망의 불씨를 피운 순국선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습니다. 이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살려 겨레의 미래를 다시금 밝힙니다. 어두웠던 시절, 아름다운 눈물로 광복의 빛을 환하게 밝혀준 순국선열, 그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 거행

2024년 5월 8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고하 송진우 선생(1890~1945)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5월 8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선생의 묘소 앞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손자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서울대 명예교수)과 유족,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국내 각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운금 숙명여대 총장의 약전봉독, 현병철 기념사업회 이사의 이사장 추모사 대독, 홍철호 정무수석의 윤석

열 대통령 추모사 대독,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서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념강연을 했다. 송진우는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주동하였고,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1945년 12월 30일 흥탄에 서거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